

한국기원 사과문

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둑계 미투 운동’ 과정에서 밝혀진 불미한 사태에 대하여 한국기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처하지 못했음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바둑 보급 활동 중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겪은 코세기 디아나 초단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바둑이 좋아 한국을 찾은 디아나 초단은 바둑 알리미로 누구보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기원은 미투 관련 제보를 받아 김성룡 9단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김성룡 9단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전후관계를 신중하게 살펴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나 사태 발생 후 즉각적이고도 명쾌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코세기 디아나 초단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바둑팬들의 우려를 초래했습니다.

한국기원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소속 기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잘못 작성된 윤리위원회 보고서를 재작성하고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기원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바둑계 내부의 적폐를 해소하고 주변을 꼼꼼히 살펴 바둑계 환경을 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둑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기원 사무총장
김영삼